

2003년 국제유가 25달러선 안착!

석유공사, 전쟁프리미엄 대부분 빠져 ... OPEC 감산정책이 변수

한국석유공사가 2003년 국제유가를 Dubai유 기준으로 2002년 대비 배럴당 1.20달러 가량 상승한 25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석유공사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대한 현황 보고에서 앞으로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정책과 2/4분기 석유수요 및 나이지리아 생산회복 추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평균 25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2/4분기 이후 국제유가는 미국-이라크 전쟁 개시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로 이미 전쟁프리미엄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이며, 비수기 도래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와 베네주엘라 생산량 회복 등이 유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해 현재의 배럴당 23-2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OPEC의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감산정책 실행, 나이지리아 종족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의 장기화, 미국의 휘발유 공급 불안감이 재연된다면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공사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해 2007년까지 비축시설 1억4600만배럴, 2008년까지 비축유 1억4100만배럴 확보를 목표로 석유 비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25>